# 나의 삶을 바꾼 전화 한 통

여 익 구

*여익구님은 민청학련사건 당시 동국대학생으로, 석방된 후 스님이 되었다가 환속, 70, 80년대 불교계의 민주화운동에 앞장서다 수차례 투옥되었었다.

1973년 12월 초, 굉장히 추웠다고 기억되는 날인데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했던 친구인 김갑헌(예일대 졸업 후 현재 미국 코네티컷 주립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자기에게 서울대 황인성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내년 봄 모종의 반유신 데모를 조직적으로 할 예정인데 가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이다. 그래 어떻게 하겠냐고 물었더니 곧 영국으로 출국할 수속을 밟아야 하는데 정말로 고민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황인성에겐 정리할 것이 있다고 며칠의 여유를 달라고 했다면서 고민의 일단을 나에게 의논해 온 것이다.

그날 나는 그로부터 그런 의논을 받은 순간 "내가 너 대신 그 일을 하마"고 단숨에 대답했다. 나는 그 일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히 예상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그 시절은 '유신' 시절이고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어 있었으므로 유신을 반대하게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따라서 누구나 그런 일을 기획하고 실행한다면 적어도 10년 이상의 감옥생활은 최소한 각오를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단순하게 "그 대신 한다"고 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순간적으로 각오한 이후의 대답이었다는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솔직히 그 당시에도 10년 이상의 감옥은 아마도 아닐 것이다, 아무리 유신정권의 서슬이 퍼렇다 해도 길어야 5, 6년 정도는 살겠지, 그러면 내가 아직도 청춘인데 그 정도야 뭐, 아무 것도 아니지 하는 심정이 가로놓여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나의 친구 갑헌이 대신에 그 일을 하느냐인 것이다.

나는 사실 언제나 그에게 컴플렉스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다. 머

리가 뛰어난 그, 언제나 당당한 그, 그리고 역사의식이 투철한 그에게 나는 언제나 경외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이 나라 민족과 역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현재의 유신체제에 대해서 비분강개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부도덕성과 반역사성을 비판하고, 박정권은 반드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야 할 반민중적 정권이라고 나에게 누누이 설교했다. 한마디로 그는 나의 지침이었고 의식화의 스승이었다.

그의 영어는 정말 감탄할 만한 수준이었다. 그는 제3세계의 종속이론을 영어 원서로 읽으면서 나에게 번역하여 주었고, 「타임」지를 읽고 세계의 흐름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모두 나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자양분이 되는 내용들뿐이었다. 내가 역사학을 공부하게 된 것도 아마 그의 권유가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마저 들 때가 있었다.

이런 그가 상처를 입고 날개를 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커다란 조국의 손실일 것이다. 그가 나보다 우월하고 따라서 그보다는 내가 희생을 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의 이익이 될 것이라는 아주 단순 소박한 논리가 나의 행동의 동기였다. 어떻게 보면 바보같은 논리이고 남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행동의 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쩌랴!

당시 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자기최면을 걸고 나의 행동을 미화하는 어쩌면 위선자적인 심성이 나의 내면 저 깊숙한 곳에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이 위선적인 자기최면은 결국 내가 검거되고 그가 자수하게 된 몇 개월 뒤 나의 마음 속에 나타났다. 그 차디찬 유치장 안에서 나의 육체적 고통은 잊은 채 정신적으로는 이제야 '그를 이겼다'는 내가 가졌던 그에 대한 콤플렉스의 극복—이것이 아주 얄팍한 내 행위의 동기였고 목적이었다는 것을 후에야 알았다.

그러나 이 단순하고 복잡미묘한 내 마음 저 깊숙이 숨어있는 컴플

렉스 극복을 위해서 치렀던 나와 내 가족의 해체는 참으로 심각한 수준이었다. 나의 형은 당시 치안본부에 근무하는 경찰로서 내가 긴급조치 4호 위반자로 수배되었을 때 형은 나를 잡으러 다녀야 하는 모순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훗날 내가 검거되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의 형은 사표를 쓰고 경찰복을 벗어야 했다. 이러한 가족적 비극은 형수가 시동생을 달가워하지 않는 현실로 변했고, 그후 우리 가족의 화목을 빼앗은 결과를 몰고 와서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치유되지 않는 상처로 남아 있다.

일단 반유신 데모를 하기로 수락하고 나니 그 때부터 만나야 할 사람과 정리되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아졌다. 민청학련 관련자들을 만나서 내가 해야 할 정확한 일과 임무, 그리고 동국대학교 내에 내가 운영하던 학습 서클을 정리하는 일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었다.

그 동안 나는 친구 갑헌의 충동으로 학내에 학습 서클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었다. 몇몇 후배들은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진단하여 행동할 대의를 정리하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 있었고, 나 역시 선배로서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도 했다.

후배들과도 이 일을 의논했다. 많은 후배들이 찬동을 하고 같이 동참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개중에는 대학원 입학, 또는 취직 등의 장래를 생각해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찬성하지 않는 후배들도 많았다.

전국적인 반유신 데모를 기획하고 지도하는 것은 서울대생들이었고, 조직과 정보의 총집합 역시 서울대생들이었다. 특히 이철이 그중의 중심인물이었던 것같고, 나는 가명으로 자기 소개를 하는 이철을 그 해 겨울에 만나 나의 역할에 대해 조율을 했던 것이 그와 만남의 최초이자 나 역시 데모 주동의 거물(?)이 된 계기이기도 한 것이다. 이건 훗날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받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다.

그가 그렇게 거물인 줄은 참으로 몰랐다. 단지 내가 그 거물을 만나서 지시(?)받은 것이 나 역시 거물이 된 계기가 된 것이니, 중앙정보부가 만들어 낸 인물치곤 나는 참으로 졸렬한 작품임엔 틀림이 없다. 하여간 나는 이철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하자, 중앙정보부에서 사진을 들이대면서 이런 놈을 만난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그가 비로소 이철이란 사실을 알았을 뿐이다.

나는 동국대학교에도 서울대학과 나와 다른 루트로 교류하고 있는 학생을 소개받았다. 이춘섭이었다. 그도 나와 잠깐 같은 학습 서클에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다. 그와 함께 동국대학교 조직을 시작했고 서로 할 일을 나누었다. 그가 조직을 맡고 내가 기획과 자금, 그리고 선언문 등을 맡았다. 나의 4학년 1학기 등록금을 데모 자금으로 썼다. 아마도 그 당시 민청학련사건에 연루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등록금을 잘라 데모 자금으로 썼던 것으로 기억한다.

무엇이 우리를 그와 같은 열정으로 이끌었을까. 학교를 포기하고 거리로 나가야 할 절체절명의 역사적 사명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을까. 유신이, 박정희정권이 그리도 반역사적이고 비민주적인 정권이었을까는 과연 얼마 만큼인지 모르는 일이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우리는 조국과 민족, 그리고 민중이라는 절대적 사랑 앞에 모든 것을 헌신하는 것이 당시 우리를 들뜨게 했던 그 무엇이었으리라.

나는 나의 과 여학생중 글씨를 잘 쓰고 입이 무거운 조명희에게 선언문 '가리방' 글씨를 부탁했다. 그녀는 몇 번 망설이다가 동의를 하고 선언문, 민중의 소리 등을 학교 본부 2층 출판실에서 방과후에 몰래 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등사 인쇄해서 내 가방 안에 보관하고, 이춘섭은 자기가 조직한 학생들에게 그것들을 분배해서 각자 예정된 4월 3일에 교정과 시내 곳곳에 뿌리기로 했다.

4월 3일 아침 신문을 펴보는 순간 긴급조치 4호 발동과 동시에

4·3데모 관련 주동자 전부를 검거하고 징역에 처하겠다는 1면 톱기사가 도배하였다. 그날 아침, 우리는 예정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으나 경찰의 삼엄한 배치와 학교 교정의 싸늘함,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학교 직원과 교수들의 몸짓에서 앗뿔사 일이 망글어졌구나 판단했다. 또 만나기로 한 학생들이 대부분 안나왔다.

나는 약속장소에 나온 몇몇 학생들과 각자 자유로운 행동을 하기로 하고 내 몫으로 할당된 유인물을 들고 서울역에 나갔다. 서울역 역시 삼엄했고 학생처럼 보이면 무조건 가방을 뒤지는 사례까지 목격하고는 가방 안에 있었던 유인물들을 화장실 입구와 변소 안에 살그머니 놓아두고 줄행랑을 놓았다.

그날 이후 나는 수배자 신세가 되어 이곳저곳을 배회하게 되었다. 수배된 지 약 10일 후 나는 경찰의 검거망을 못 벗어나고 서울 중부서에 잡히게 되었다.

그 동안 나에 앞서 이춘섭도 왔었고 조명희도 왔었고, 나와 조금이라도 연루된 학생들은 모두 잡혀와서 관련 사실들을 털어 놓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들의 성화에 못이겨서 모두 자수형식을 빌어서 조사받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중앙정보부에서 일주일 동안 잠을 안재우고 두드려 맞으면서 조사를 받은 결과 끝내 이름을 불지 않았던 김갑헌도 그의 형들에게 이끌려와 중앙정보부에서 조사를 받고, 영국 유학이 수포로 되지 않게 하는 조건으로 석방되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지루한 재판 끝에 나는 15년의 형을 받았다. 그리고 최후진술로 내 인생의 미래를 예감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된다.

"이 법정을 부처의 눈으로 볼 때, 과연 내가 피고인지 내게 벌을 주려는 재판관이 피고인지, 나와 당신들중 누가 진정한 피고인지 가름해 주실 것이다."

이 최후진술은 같은 민청학련 동지인 유홍준 교수(『문화유산답사기』의 작가)가 그의 책 서문에다 인용한 것으로 기억한다. 아마도 이 최후진술이 그의 기억을 새롭게 한 것 같다.

1975년 2월 15일 저녁, 평소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잠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교도관이 문을 열더니 짐싸들고 나오라고 한다. 이 밤에 웬 전방(감옥의 방을 바꾸는 행위)인가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며 짐을 싸고 있으니 눈치 빠른 감방 동료들이 석방이라고 축하한다고 하였다.

민청학련 관계자들이 다 그렇듯이 나도 근 1년간 면회 한번 못하여 가족의 근황을 비롯한 바깥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왜 갑자기 석방이 되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하여간 나는 짐을 싸들고 감옥의 한 사무실로 안내되었다. 전혀 일면식도 없던 기관원이 내게 다가오더니 흰 종이를 내밀며 반성문을 쓰라고 한다. 무엇을 반성하냐고 했더니 대통령의 2.15특별조치로 사면이 되어 석방되는 것이니, 대통령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따위의 반정부 데모는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라는 것이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싸든 짐을 다시 둘러메고 감방문을 향하면서 그런 따위의 글은 쓰지 않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너는 참으로 멍청한 놈이다"고 하면서 "이것은 단지 석방을 위한 요식행위이다. 심각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나가서 다시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너에게 달려 있다"고 나를 바보취급한다.

나는 그 순간 그의 펨에 빠졌다. 울컥 하고 눈물이 내 눈을 타고 내려오면서 시야를 가리고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경찰과 빨갱이를 동시에 아들로 둔 어머니, 형과 동생 사이에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형님이 경찰옷을 벗었다는 소식을 교도관으로부터 풍문으로 들었는데, 갓 결혼한 형수는 나를 얼마나 원망할까 하는 상념들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나는 어기적거리고 다시 돌아와서 책상 앞에 앉아 흰 종이 위에다 글을 썼다. 이른바 '각서'다. "석방시켜 주시는 대통령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였다. 그는 각서의 내용을 지그시 보더니 "좋아, 나가!"했다.

나는 따블백을 들고 승리의 출옥이지만 패배자가 된 심정으로 감옥문을 나섰다. 그러나 감옥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나는 깜짝 놀라는 광경을 목도해야 했다. 내 앞을 가로 막은 것은 TV의 불빛과 마이크였다. 가족보다도 먼저 기자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소신을 물어보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내 안의 사악한 교활성이 튀어나오는 것을 내 스스로 목도해야 했다.

"앞으로도 내 소신껏 민주화운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5분 전 각서를 쓰고 나온 내가 5분 후 기자들 앞에서 만천하에 기염을 터뜨리는 나의 이중성에 나 자신조차도 놀래었다. 컴컴한 방에서의 진실과 밝은 불빛 아래서의 소신 발언 사이에 끼인 나의 진실은 과연 어떤 것일까? 나는 누구이고 무엇일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주위의 격려와 존경스런 찬탄도 마다한 채 자괴감에 젖어 웃음을 잃었다. 그리고 9시 뉴스에 내 얼굴과 함께 나의 소신 발언으로 영웅 대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아주 쓰디쓴 웃음을 지어야 했다.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들도 나의 말이 대서특필되어 사진과 함께 사회면 톱을 장식하고 있었다.

나는 한편으론 영웅이고, 한편으론 비겁자이다. 아니 전체적인 맥락으론 위선자가 가장 맞는 말일 것이다. 어둠(5분 전)과 대명천지간(5분 후)의 이중성은 그 후 나를 괴롭히는 인생의 전체적인 화두가 되었다.

이 때부터 나는 되도록 언론을 기피하게 되었다. 나는 웃음을 잃었고 되도록 침묵했으며, 석방의 즐거움이 아니라 석방의 괴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어야 했다. 내 속에는 어느새 가출과 출가를 꿈꾸기 시작했다. 출가만이 나의 이중성을 해결할 수 있을 것같은 막연한 기대가 움트기 시작했다.

그 때부터 나는 중이 되기 위한 수순을 하나 둘 밟기 시작했다. 소위 도를 닦는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당대 고승들을 찾아서 나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지리산에 숨어서 도를 닦는다는 은둔자를 찾았고, 영축산, 속리산을 헤매며 숨은 도인들을 만나 보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실망했다. 그분들의 영적 깊이는 내가 헤아릴 길이 없었고, 놀랍게도 나는 그 분들이 역사의식이 너무도 없다는 것에 대해 실망했다.

나는 무엇이고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느냐와 같은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만 매달려서 헤매고 있는 것같이 보였으며, 이웃의 고통에 대하여, 억압과 가난과 착취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질문에 대하여는 참으로 무지하거나, 일부러 외면하는 것같은 느낌을 받고 또 한번 실망을 했다.

나는 '나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인 의문'과 '이웃과 더불어 고통을 나누는 사회역사적 의문'을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뇌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나는 내 안의 이중성에 대한 고통에서 시작하여 인생의 본질과 현상의 이중성에 대한 고뇌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그것은 출가의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석방되던 해 초겨울이 다가서는 시점에서 집을 나와 입산을 했다. 중이 된 것이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지금, 5년의 수도생활, 연애와 결혼, 다시 치열한 민주화운동, 또 수배와 구속 수감의 연

속된 10년 세월,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온 정신적 공허와 공동,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을 하려고 몸부림했던 지난 날, 민주화운동 가운데서 성공적인 '매명'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딛고 정치에 입문했으나 계속되는 실패와 몰락.

나는 아직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중성과 위선성을 극복하지 못했음을 느낀다. 더욱 인생의 본질과 현상의 이중성에 대한 고뇌도 해소해 내지 못하고 나는 내 앞에 주어진 현실과 타협하고 굴복하면서 적당하게 살아 왔음을 고백한다. 그리하여 나는 생의 마감을 향해 마지막 황혼을 붉게 물들이려고 안간힘 하는 평범한 중늙은이로 변해가고 있다는 이 엄한 현실 앞에서 한 번 더 절망한다. 아! 다시 젊음을 산다면 이 무수한 고뇌와 고통들을 한꺼번에 해결해 낼 수 있을까?